

집중진단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주요공약 검증 (1)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수익 도민 환원”... 과제 산적

100조 투입 10GW 규모... 도내 풍력 개발 총량의 86% 용인 반도체에 직접 공급해 연간 4조원대 매출 기대 ‘제주-전남 송전망’ 구축 필수... 국가 계획엔 제외돼

지난 1일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한 가운데 본보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했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1조원 혁신펀드 조성 ▷AI 데이터센터 유치 ▷4대 과학기술원 제주캠퍼스·제주과학기술원 조성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등 5대 주요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 해상 및 육상풍력 가능 총량을 표시한 제주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위성곤 지사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23일 처음 공개됐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위 지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총 100조원을 투입해 10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과 독립계통으로 설계된 제주-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송전망을 조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4조2000억원의 매출과 최소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생산: 10GW급 풍력 단지 조성
2023년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 풍력발전 개발 가능 총량(잠재량)은 해상 1만1582MW(수심 50m 미만·어업구역 포함 2627MW+수심 50m 이상·어업구역 배제 8955MW)에 육상 450MW를 더한 총 12,032GW(1만2032MW)이다. 10GW는 제주가 개발 가능한 거의

모든 바다를 채워야 나오는 규모로 도내 풍력 개발 가능 총량의 86% 차지한다.

특히 수심 50m 이상 구역의 경우 잠재량에는 포함됐지만 국내에 상용화 실적이 거의 없는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

▶유통: 대규모 HVDC 송전망
위 지사는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HVDC 송전망을 거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가계획에는 송전선로 구축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분)에는 서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계획이 포함됐으나 제주-전남 간 전력계통은 제외된 상태다. 방식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

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HVDC가 단일 경로로 산업단지에 직접 인입될 경우 고장 시 우회로가 없어 계통 운영 위험이 커진다. 이는 ‘클러스터 직송’이라는 공약 프레임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판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한 전기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53년까지 약 15GW 이상의 전기가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인근 LNG 발전(3GW)과 호남-용인 송전선로(6GW), 동해안 연계 등 전력공급계획이 이미 짜여 있다. 육지부 공급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터라, 이제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는 시기적으로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 현황
현재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은 정책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제주도는 우선 제12차 전기분배에 육지 수출 물량을 별도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 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국가계획에 HVDC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해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18회 국제기독교의료치과협회 세계총회가 제주의 매력을 알리며 6일 간의 일정을 끝내고 5일 마무리됐다.

국제기독교의료치과협회 제공

‘국제기독교의료치과협회 세계총회’ 성료... 100여개국서 참가

취약계층 보호·저출생 등 의료 이슈 논의

관광 제주 알리는 기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세계 기독교 의료·치과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6 제18회 국제기독교의료치과협회(ICMDA) 세계총회’가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세계총회는 4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행사로 천혜의 자연과 관광제주를 알리는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번 세계총회는 세계기독교의사치과의사협회 산하 한국 단체인 한국기독교의사회(KCMDA)와 한국누가학회(KCMF)의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30일 개막해 7월 5일까지 6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전주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김윤환 과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돼 대회를 총괄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기독교의사치과의사회는 한국기독교의사회를

포함해 전 세계 107개국 의사와 치과의사 6만명이 가입한 국제단체로서 4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대회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제주의 부영청소년수련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다.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 기독교 의료인과 의·치대생, 의료계 지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성경 강해를 비롯해 분야별 사전 컨퍼런스, 차세대 의료인을 위한 세계 학생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윤리 이슈가 다뤄졌다. 또한 ▷조력 자살과 안

락사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 ▷낙태와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태아 생명 보호와 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의료윤리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한라의료원 등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 불의에 시달리는 자, 분쟁으로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안 윤곽... 2면 / 횡집 대상 ‘노쇼’ 사기 잇따라... 4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3대 개원

오직 민생과 제주의 미래만 바라보고 더 단단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도의회 누리집
바로가기